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소식

인천소식

김주희
인천일보 기자

홍예문 가는길!

인천예총 미추홀 문화회관이 5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인천시 중구 전통 홍예문에서 야외 거리예술전 <홍예문 가는길!>을 열었다.

올해로 5번째인 거리예술전은 인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축조물의 하나인 '홍예문'을 주제로 한 독창적인 예술축제다.

길놀이와 사물놀이, 종이 목공예, 서예, 미추홀 어린이 요들단 공연, 과학실험 시연과 체험, 클라리넷 연주회, 천연 비누 화장품 만들기, 생활자기 옹기 만들기 등이 홍예문 일대에서 벌어졌다.

한국화 대제전

최고의 한국화가들의 삶과 그들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접할 수 있는 <한국화 대제전>이 5월 6일부터 12일까지 인천종합문예회관 대전실에서 열렸다.

'화광동진'을 주제로 서울의 대학 미술과 교수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중견 한국화가 30명과 인천의 한국화 전업작가 55명 등 85명이 참여했다.

이번 전시는 특히 이미 화단의 정점에 선 한국화 중견작가들과 새롭게 발을 들여놓은 인천의 젊은 작가들이 함께 참여, 한국화단의 현주소와 인천지역 화단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한일 국제교류 '클라운 마임'

소극장 단체와 극단 마임, 클라운마임협회의가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인천 여성의 광

장과 인천도호부청사에서 한일 국제교류 '클라운 마임'의 세계를 펼쳤다. 한일 양국의 대표적인 클라운 마임팀이 나와, 새로운 클라운 마임의 세계를 선보였다.

지난해 10월 열린 인천국제클라운마임 축제에서 관객들의 갈채를 받았던 '엔타운 폴스'의 '부치'가 인천을 다시 찾았고, 줄타기와 자전거 타기의 명인 '똘'은 처음으로 한국 관객과 만났다.

가쓰시와 마마레 남매로 구성된 '팀팀 서비스'는 한국에서 아직 생소한 캐릭터 클라운의 세계를 선보였다.

한국 클라운 마임을 대표하는 최규호를 비롯해 클라운마임협의회 김찬수, 송정배, 극단 마임의 최은비, 박성일이 출연했다.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강화도의 모습

강화미술협회는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인천시 강화군 옛 보건소 자리에 위치한 강화미술회관에서 '갑비고차의 표정'을 주제로 정기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강화도의 옛 지명인 '갑비고차의 표정'이란 주제에 걸맞게 역사와 유적의 고향 강화도의 모든 것을 그림과 공예, 조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박송우, 김선희 등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국내 화단을 이끌었던 중견작가들을 비롯, 36명의 강화 출신 작가들이 참여했다. 강화도와 수도권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작가들이다.

협회 교문을 맡고 있는 김선희 화백은 강화의 풍경을 아크릴 소재로 새롭게 표현, 현대미술의 섬세함을 드러냈다. 이외재의 <수선화>는 동양적 수수함이 살아 있으며, 박송우의 수채화 <풍경>은 강화의 자연을 힘차게

그려냈다. 양의석은 간결한 터치로 산과 바다, 배가 어우러진 강화의 모습을 담았다.

함세덕 희곡상 공모

학산 젊은 연극제 준비위원회(위원장 김만수)는 인천이 낳은 극작가 함세덕의 극적 성취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연극제를 여는 한편, '함세덕 희곡상'을 공모한다.

연극제는 '학산젊은연극제'란 이름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1주일간 학산소극장과 인천 시민연극센터 등 인하대 후문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상금이 2천만 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가 될 함세덕 희곡상은 오는 7월 11일부터 공모한다.

공모작품은 공연시간 100분 이내의 순수창작 희곡으로, 소재는 자유다. 응모대상은 신인 및 등단 후 10년 이내의 기성작가다.

학산 젊은 연극제 인터넷 홈페이지(www.hsplay.net)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7월 30일까지 연극제 준비위원회에 우편으로 원고(줄거리 A4 3매 이내 첨부)를 제출하면 된다.

연극제 준비위원회는 당선작에 대해 다음 연도 연극제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공연 제작 및 작품집 발간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선작은 8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인천시 남구 용현4동 81-8 용현4동 동사무소 4층 남구 학산문화 ☎(032)866-3927

경기소식

류주선
경인일보 기자

국내 최초 고지도박물관, 혜정박물관 개관

국내 최초의 고지도 박물관이 지난 5월 17

일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내에 개관했다. 관장인 김혜정(58. 여) 씨의 이름을 따 혜정 박물관이라고 명명된 이 박물관에는 15세기 이후 서양인들이 제작한 고지도 900여 점이 소장돼 있어 소장품 규모면에서도 세계 최대를 자랑한다. 김 관장이 30여 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집한 소장품 중에는 독도와 동해, 간도와 관련해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들이 많다. 프랑스 등 대부분의 지도들이 독도를 포함해 동해를 고려해 또는 조선해로 표기하고 있다. 또 1734년 프랑스 왕립과학아카데미 회원인 당빌리(D'arville)가 제작한 우리나라와 일본 지도에는 간도, 집안이 모두 조선 영토로 표시돼 있으며 간도와 관련된 69점의 서양 고지도들도 마찬가지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제작 고지도로는 대동여지도(1861년) 이전에 제작된 <해좌전도>(19세기 초)와 <동국여도>(19세기 초) 등이 포함돼 있다.

김 관장은 일본 유학시절 고지도의 아름다움에 매료돼 고지도 수집에 심혈을 기울였다. 지리학에 문외한이지만 당빌리뿐 아니라 영국 지리학자 존 케리, 본 도법으로 유명한 프랑스 지리학자 본, 월킨스 등 당대를 대표한 서양 지리학자들의 지도가 15세기에서 20세기까지 시대별로 빠짐없이 수집돼 있어 높은 안목을 보여준다.

김 관장은 “세계사를 이끌었던 나라들은 모두 지도 연구와 제작이 활발하게 이뤄졌다”면서 “지도 속에는 국가와 민족의 뿌리가 담겨 있어 알면 알수록 귀중한 자산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지도 연구에 평생을 바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혜정박물관과 김혜정 관장

혜정박물관은 개관 기념전 <찾아라! 우리 땅, 우리 역사> 기획전을 연 데 이어 오는 6

월 25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간도는 우리 땅>이란 테마기획전을 70일간 개최할 예정이다. 혜정박물관은 이 캠퍼스 중앙도서관 4층에 자리 잡고 있다. (031)201-2011~4

경기소리로 만든 춘향전

판소리로 잘 알려진 춘향전을 경기소리로 엮은 창작소리극 <춘향, 내 사랑>이 5월 22일 경기도문화의전당 무대에 올라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가정의 달을 맞아 경기도립국악단 민요팀이 주축이 돼 꾸민 공연으로, 국악단 사물놀이팀과 경기도립무용단 단원들, 지역 국악인 등이 출연해 정겨운 무대를 꾸몄다.

공연은 판소리 <춘향가>의 골격을 12잡가와 경기민요로 재창작했다.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과 사랑, 이별과 기다림, 재회와 환희라는 주제에 따라 <유산가> <이별가> <정선 아리랑> <적벽가> <태평가> 등을 이어나갔다.

총연출을 맡은 최근순 수석단원은 “춘향가를 경기소리를 만들어 새롭게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했다”며 “도립예술단원과 지역 국악인들이 의기투합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작품에는 선소리산타령 이수자인 지역 국악인 박종국, 한진자, 이선영 씨 등이 참가했다.

볼쇼이극장 오페라 가수들, 수원서 공연

경기도음악협회(회장 오현규)는 2005 정기음악제로 <러시아 볼쇼이 오페라 주역가수 초청음악회>를 지난 5월 11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개최했다.

‘봄, 사랑 그리고 아리아’라는 주제로 펼친 음악회에서는 볼쇼이극장 오페라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안나 아글라토바, 메조 소프라노 이리나 아가네소바, 바리톤 세르게이 모스칼코프 등이 오페라 아리아와 러시아 민요 등을 노래해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들 가수들은 시원한 발성에 뛰어난 무대 매너로 자칫 밋밋할 수 있었던 무대를 생동감 있게 이끌어 프로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한국 측에선 러시아 국립 그네신음대를 졸업한 테너 손성래, 소프라노 한지희, 아로싱어즈가 출연했다.

강원소식

— 옹호선
강원일보 기자

박수근 화백 40주기 기념전 <다시 봄이 오다>

지난 5월 6일은 한국미술을 대표하는 양구 출신 박수근(1914~1965) 화백의 40주기 일이었다.

강원도 양구군 정림리 131-1번지 박 화백의 생가터에 세워진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명예관장 유홍준·문화재청장)이 때맞춰 40주기 기념전 <다시 봄이 오다>를 기획, 지난 달 14일 개막했다. <다시 봄이 오다>는 박 화백의 선전(鮮展) 첫 입선작 <봄이 오다>에서 비롯됐다.

이번 기념전에서는 박 화백이 1956년 아내 김복순 씨를 모델로 그린 미공개 유화 <절구 질하는 여인(32.7×21cm)>과 <수하(樹下 33.2×24.4cm)> 두 점이 처음 공개되고 있으며 <빨래터> 등의 유화 13점을 비롯 수채화와 판화 드로잉 등 총 50여 점이 선보인다. 전시회는 오는 7월 10일까지 열린다.

서울에서 관람객들과 함께 버스 편을 이용해 개막식에 참석한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연 2만 명이 방문하는 박수근미술관은 유럽의 어느 곳보다 훌륭한다”며 “전국에서 문화시설 건립에 벤치마킹을 하는 모범적인 문화시설”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전시회 일정에 맞춰 귀국(호주 거주) 개막식에 참석한 박 화백의 장남 상남(58) 씨는 “아버지의 그림 그리는 모습을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화가의 꿈을 키웠다”며 “외출했다 돌아오면 자식들을 위해 엮겨 락 하나, 고무마 한 개라도 꼭 챙겨오곤 하시던 아버지였다”고 회상했다.

전시회 개막식에는 박 화백의 장녀 인숙(인천공예교 교장) 씨를 비롯 원로 미술평론가인 오광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신화의 권위자인 소설가 이윤기 씨, 서양화가 유병훈 박수근미술관자문위원장, 권대영 도미술협회장, 미술평론가 박영택 경기대 교수, 임경순 양구 군수, 김태진 군의회 의장, 이한홍 노도부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수근미술관은 지난 2002년 문을 열었으며 지난해 4월 15일 박수근 화백의 부부의 묘가 미술관 뒷동산 양지 바른 곳으로 이장

됐다. 박 화백의 묘는 경기도 포천군 한 공원 묘원에 있었다.

양구군은 올해 18억여 원을 들여 미술관 옆 5,200여 평의 부지에 기획전시실과 작업공방 사무실 카페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예술인촌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 40주기 기념전에서 처음 공개되는 박수근 작 <수하(樹下)>와 <절구질하는 여인>

‘문학은 살아 있다’

백담사만해마을 토요문학아카데미

한국문학의 메카를 선언한 (재)백담사만해마을이 매월 토요문학아카데미를 열어 우리 시대 대표 작가와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다.

‘문학은 살아 있다’를 주제로 오는 12월 까지 매월 개최하는 토요문학아카데미는 지난달 14일 <비닷가 우체국>의 안도현 시인을 초청 첫 독자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오는 6월 11일은 정현중 시인을 초빙한다. 시집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로 대표되는 정 시인은 현대문학상, 대산문학상, 미당문학상 등을 수상한 연세대 명예교수.

7월 9일에는 강릉 출신의 소설가 김별아 씨가 독자와 만난다. 김씨는 지난 2월 장편 소설 『미실』로 1억 원 고료의 제1회 세계문학상을 수상, 주목받고 있는 작가다.

8월 27일에는 정호승 시인을 초청한다. 정 시인은 시집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외로 우니가 사랑이다』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라』로 많은 고정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문인이다.

9월 10일에는 우리 시대의 소설가 조정래 씨가 초빙된다. 대하소설 『태백산맥』과 『아리랑』 『한강』 등으로 대표되는 그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10월 8일에는 동국대 석좌교수인 문정희 시

인과 만난다. 문 시인은 시집 『꽃숨』과 『아우내의 새』 『남자를 위하여』 등이 있으며 현대문학상과 소월시문학상을 수상했다.

『만다라』 『피안의 새』 등 불교의 세계가 담긴 작품을 발표해 온 소설가 김성동 씨의 강의는 11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올해 토요문학아카데미는 지난 4월 소설집 『온 생애의 한순간(문학과지성사 刊)』을 펴낸 흥천 출신 소설가 전상국(김유정문학촌장) 씨의 12월 10일 강의를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강의시간은 매회 오후 3시.

문의: 033-462-2304.

제12회 춘천 ‘봄내종합예술제’

봄의 도시인 제11회 봄내종합예술제가 지난달 13일 춘천예술마당에서 개막돼 22일까지 춘천문화회관 김유정문학촌 등 춘천 시내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졌다.

춘천예술제가 주최한 봄내종합예술제는 호반의 도시에서 삶과 예술을 빛낸 예술인들이 춘천 시민들을 초대해 함께 예술을 통해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

올해 예술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예술’을 지향하며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음악 등 8개 회원단체의 산만했던 행사 일정을 집약시켰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또 춘천예술마당을 지역의 명실상부한 문화공간으로 알리기 위해 예술마당 내 야외무대 설치를 비롯 아트프라자갤러리 봄내극장 등을 적극 활용했다.

13일 오후 8시 춘천예술마당 특설무대에서 전야제 개막공연으로 문을 열고 14, 15일 국악 무용 문인 연예 음악 등 5개 단체의 공연을 한자리에서 선보였다.

특히 춘천무용협회는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으로 일본 히로시마 예술인들을 초청, 지역 무용예술인들과 교류행사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봄내국악제, 청소년국악발표회, 전국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봄내청소년백일장, 봄내학생미술실기대회, 봄내청소년음악회, 봄내무용제, 봄내연극제, 봄내청소년가요제 등이 펼쳐졌다.

제5회 강원예술교수음악회

제5회 강원예술교수음악회 2005 교수음악회가 16일 오후 7시 30분 강릉문화회관에서 열렸다.

강원예교(교장 김중철)가 주최한 이번 음악회에는 테너 이상조 씨를 비롯 가야금 원지영 해금 윤문숙, 바이올린 호윤진·장형식, 작곡 강지석, 비올라 김지훈, 클라리넷 김철원, 튜바 이승재, 피아노 양진희 씨 등 10명의 교사가 무대에 섰다.

이들은 이날 무대에서 김죽파의 가야금산조를 시작으로 김영재의 황토길, 오소희의 윤희, 모차르트의 소나타, 쇼팽의 스케르초 등을 관객들에게 선사했다.



청주시립합창단,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감동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이 청주 무대에 올려졌다. 청주시립합창단이 청주예술의전당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기획공연으로 5월 7일과 8일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공연했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무대로 청주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인 김정연 씨의 지휘로 감독에 이문희 씨(충청대 교수), 연출에 이용화 씨(충청대 교수)가 각각 맡았다.

시립교향악단 연주에 맞춰 출연은 마리아에 박미경·정지연, 대령에 피규영·한준희, 막스에 양종훈·공신웅 등 지역 성악가들이 대거 무대에 섰다.

이번 작품은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엮여있는 무대, 역동적인 표현으로 극적 감동을 이끌어내는 연출, 섬세한 터치의 음악과 연기의 변화를 시도한 점이 지난해와 다른 점이다.

<사운드 오브 뮤직>은 뮤지컬 불모지인 지역 무대에 모처럼 객석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영세한 제작여건이나 연기자 부족 등으로 인해 뮤지컬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지역 무대에 관객들에게 뮤지컬의 즐거움과 감동을 안겨준 작품으로 가능성을 보였다.

사진작가 김운기 작품전

과거 한국 농촌사회에 '소'의 힘은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늘상 가까이서 생활하는 삶의 한 부분이었다.

중진 사진작가 김운기 씨(69)가 40여 년간 찍은 '소' 사진을 모아 전시를 열었다.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청주예술의전당 대전시실에서 선보인 이번 작품전에는 흑백과 컬러 작품 100점을 내놓았다.

전시작품들은 한국적 토속성을 함축하고 있는 사진들로, 향토성 짙은 주제 의식을 동반 하면서 인간적이며 시대적인 기록성을 담았다.

농경사회적 전통과 정서가 오랜 세월 동안 체질화된 한국인들의 꿈과 환상을 장려한 아름다움으로 펼쳐 보인 김씨의 사진들은 한없이 정겹고 평화로우며, 관조적이고 건강한 이미지를 보여줬다.

충북을 비롯해 강원도, 제주도, 전라도 일대에서 촬영한 사진들은 타블로이드 크기에서부터 대형사진에 이르기까지 우직하고 순박한 소에 대한 애정을 가득 담아냈다.

충북사진작가협회장을 지낸 김씨는 강인하고도 섬세한 감각으로 역사성과 사실적인 사진을 끊임없이 촬영하면서 투철한 고항에 대한 애향정신을 함께 해 온 작가다.

국립청주박물관 봄 문화축제

국립청주박물관이 문턱 낮추기에 나섰다. 박물관은 문화재를 발굴, 보존하는 종전 고정화된 인식에서 탈피, 시민에게 다가가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이미지 정립을 구축하고 있다.

청주박물관의 이러한 시도는 최근 사회 교육기관인 청명관을 개관, 열린공간으로 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며 박물관 자문위원을 구성해 운영개선과 발전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는 등 인식전환을 위한 사업추진에서 엿볼 수 있다.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주요 행사로는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특별전으로 <사진으로 보는 충북문화재의 옛모습>을 개최했다가 하면 4월 30일 박물관 가족음악회,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 문화축제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펼쳐 주목을 끌었다.

특별전으로 선보인 <사진으로 보는 충북문화재의 옛모습> 기획전은 충북지역 문화재와 풍광을 대상으로 촬영된 일제시대 유리원판과 사진을 처음 공개한 전시였다.

박물관 가족음악회는 국악인 김용우 씨를 초청해 퓨전국악을 선보였다. 봄 문화축제는 충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예술인과 공연단체들이 대거 참여해 박물관 자체 기획 행사와 함께 별이는 시민주도형 축제로 펼쳐가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청주박물관은 정기적으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체험형 박물관 교실운영, 공예교실 확충, 역사체험 테마공원 조성, 지역예술인과 네트워크 구축, 청명관 로비의 미술관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대구 · 경북소식

이경달
매일신문 기자

벨리루스 볼쇼이 국립발레단 공연

키로프, 볼쇼이 발레단과 함께 옛 소련의 3대 발레단 가운데 하나였던 벨리루스 볼쇼이 국립발레단은 5월 12~14일 오후 7시 30분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스파르타쿠스>와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을 펼쳤다. 1992년부터 예술감독을 맡아온 발레틴 옐리자리에 프가 두 작품의 안무를 맡았다.

한 · 일 가곡교류음악회

창작가곡회는 5월 9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제14회 정기연주회 '한 · 일 가곡 교류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음악회에는 양국 작곡가들의 순수 창작 작품 22곡이 연주되었다. 소프라노 김은형, 이은림, 박희숙, 테너 여정은, 박범철, 바리톤 조정래, 이다니엘, 소프라노 모치마츠 토모요, 하야시 마야, 메조 소프라노 마야키 게이코, 테너 아마시키 가즈유키 등이 출연, <달구벌 달밤> <My emotion> 등을 불렀다.

<Home, Sweet Home> 전시회

대구문화예술회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기획전 <Home, Sweet Home>전을 5월 4일부터

22일까지 개최했다. 구성수, 김순연, 김민수, 김유리, 노수영, 박영균, 이기섭, 이은정 등 11명의 30, 40대 젊은 작가들이 참여해 가족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갈등과 욕망, 화해의 메시지가 담긴 작품 60여 점을 선보였다.

한 · 중 사진교류전 <백조의 향연>

한국동방국제예술원과 중국 웨이하이(威海) 사진작가협회가 마련한 제2회 한중국제사진교류전 <백조의 향연>이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된 작품은 맑은 해수와 풍성한 해초류 때문에 매년 수만 마리의 백조들이 날아들어 중국에서도 유명한 웨이하이시에서 1시간 거리의 바닷가 마을에서 촬영된 것으로 백조가 비상하는 모습, 암수가 어우러진 모습 등을 담은 한국작가 15명, 중국작가 20명의 사진 총 80여 점이 선보였다.

대구 대표축제 9월 개최

대구 대표축제가 민간 주도로 오는 9월 개최된다. 대구시축제조직위원회는 5월 6일 대구 대표축제를 지하철 2호선 개통과 대구국제오페라축제(9월 25일~10월 29일), 남산인쇄거리축제(10월 중),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10월 5일) 등과 연계해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반월당 네거리로 중심으로 시내 일원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이번 축제는 '컬러풀 대구'라는 시정 슬로건에 맞추어 다양하고 특색 있는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공원 축제 및 문화제라 공연이 펼쳐지며 10월 1일 오후 6시 두류공원 내 코오롱아워즈음악당에서는 경축행사가 열린다. 또 시민참여형 가장(假裝) 길놀이인 거리 퍼레이드가 10월 2일 오후 3시부터 동인초교~국채보상로~반월당까지 2.4km 구간에서 펼쳐진다.

이어 오후 7시 반월당 네거리에서 월드컵 경기원전처럼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길거리 축제인 'Fashion & Passion Night'가 개최된다. 한편 축제조직위원회는 축제 명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 제정하기로 했다.

경남소식

_강동욱
경남일보 기자

경남예총 향토사랑 순회 사진전

경남예총(회장 이영환)이 주관하는 제20회 향토사랑 순회 사진전이 지난 5월 9일부터 7월 말까지 함안문화예술회관을 시작으로 밀양문화의집, 양산문화예술회관, 거제시청 민원실, 통영시민문화회관, 사천예술회관, 거창문화센터 함천문화예술회관 등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향토를 소재로 한 예술작품들을 순회 전시하여 시민들의 향토에 진작과 예술 수준 고양에 이바지하며 문화소외 지역 도민들에게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매년 그림, 사진, 서예 중 한 분야를 선정하여 순회 전시하며 올해는 제20회로 사진전이다. 참여작가는 각 예총 산하 미술협회, 또는 사진협회 회원 중 각 단위 지부장의 추천을 받은 작가들이며 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전시, 관람의 기회가 많은 마산, 진주 등 대도시 지역은 전시를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을 선별하여 순회 전시한다

이영환 회장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단단한 주제의식과 집요한 탐사의 과정을 거치며 일구어낸 그들의 빛과 색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도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많은 관람을 바랐다. 각 지부 참여작가는 다음과 같다.

창원=손우욱 송영만 이정환 조승환 최태순, 마산=김익태 김태중 김화석 박기섭 박장수 박홍식 최양호, 진주=리영달 박홍두 변영림 오구식 이준규, 진해=김병주 김준순 박천현 이영기 황득순, 통영=고두승 박수자 박혁래 이유문 정동진, 밀양=김상호 배재홍 백진호 신진오 조해동, 양산=권기현 배일성 서춘식 여태경 장기덕, 거창=김기현 김도형 김윤국 윤영호 하종희

전시일정은 5월 9~14일 함안문화예술회관, 16~21일 밀양문화의집, 23~28일 양산문화예술회관, 5월 30일~6월 11일 거제시청 민원실, 6월 13~7월 11일 통영시민문화회관, 6월 20~25일 사천예술회관, 7

월 18~23일 거창문화센터, 7월 25~30일 함천문화예술회관이다.

5월 28일 제1회 통영 소극장 축제 개최

5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 통영 벽수골에서 마련하는 제1회 통영 소극장 축제가 개최된다.

제1회 통영 소극장 축제는 각 지역 극단간의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해 열악한 지역문화공연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관객들에게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처음 마련된 것으로 올해는 이번 행사의 주축자인 극단 벽수골의 <리타 길들이기>와 거제극단 예도의 <짬뽕>, 서울 지역 극단 화살표의 <사랑...소리나다>가 벽수골 전용 소극장 무대에 오르게 된다.

5월 28일 첫무대를 장식하는 거제 예도의 <짬뽕>은 지난 경남연극제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5·18광주항쟁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한 중극집 식구들이 겪는 5·18항쟁을 다양한 몸짓과 소리를 통해 아주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는 평을 받은 작품이다. 공연은 29일까지 세 차례 선보인다.

6월 4~5일 경남 지역에서 첫 선을 보이는 서울 극단 화살표의 <사랑...소리나다>는 2003년 퓨전시파극 <보고싶습니다>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사람이라는 소재에 만화적 상상력을 가미해 ‘소리나지 않다’와 ‘소리나다’로 꾸며진 평범하지만 독특한 사랑을 재미있게 그리고 있다.

6월 28일부터 선보이는 통영 벽수골의 <리타 길들이기>는 한 장소에서 두 주인공이 벌이는 단조로운 구성이지만 삶과 지식에 회의감을 느끼는 한 교수와 그 교수의 수업을 받게 되는 20대 중반 미용사를 통해서 인간의 개인주의와 지식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솔직하고 대담하게 꾸짖고 있는 작품이다.

제5회 우포늪 시생명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제5회 우포늪 시생명제(대회장 김석규)가 ‘생명과 평화의 이종주’라는 주제로 경남 창녕군 유어면 소재 우포생태학습원(구, 창녕 회룡초등학교)과 우포늪 일대에서 열렸다.

행사는 30일(토) 오후 4시, 우포늪 예코가이드 전원배(경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씨의 길 안내로 ‘우포늪 도보탐사’를 한 뒤 오후 7시부터 문인수 최영철 성선경 시인 등의 시로 만든 ‘우포늪 영상시’를 배경으로 무용가 현숙희 영상대 검임교수의 ‘2005년 우포늪 시생명제를 여는 생명춤’이 펼쳐졌다.

개막 행사 후 제1부 ‘생명의 무대’에서는 시인 김석규 대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정일근 운영위원(시인)의 <우포늪 생명선언문> 낭독, 문학평론가 홍용희 교수(경희사이버대학교 문예창작과)와 이재복 교수(한양대 국문과)의 <생명문학 특강>, 올해 제20회 소월 시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박주택 시인과 박서영, 이재훈 시인 등의 ‘시낭송’이 펼쳐졌다.

이어 제2부 ‘평화의 무대’에서는 시 노래회 ‘푸른 고래’의 시노래 콘서트와 초청 가수 이지상 씨의 무대가 펼쳐졌다. 특히 시노래회 ‘푸른 고래’는 배한봉 시인의 <우포늪 왓새>, 송수권 시인의 <餘韻>, 이우걸 시인의 <늪> 등 우포늪을 주제로 한 시와 삼천포 출신인 고 박재삼 시인의 시 <천년의 바람> 등 여러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시 노래로 생명의 기운이 충만한 봄밤을 수놓으며 시생명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시인과 독자의 만남’에서는 이광석, 송수권, 나태주, 이우걸, 오하용, 정일근, 박주택, 최영철, 이상욱, 성선경, 배한봉, 홍용희, 이재복, 이재훈, 김경, 김은숙, 이응인, 조숙 시인 등 전국에서 참여한 100여 명의 문인들이 생명을 주제로 독자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인 5월 1일에는 우포늪을 체험하며 문학적 영감을 얻는 <김용택 시인과 함께하는 생태문학기행>을 가졌다. 섬진강의 시인으로 유명한 중진 김용택 시인의 ‘우포늪에서 들려주는 서정시 이야기’가 참가자들에게 시심을 불러일으키고, 초대가수 남미경 씨가 시노래를 열창한 뒤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독자와 참가시인들의 시낭송이 이어졌다.

대회장인 김석규 시인은 “언제나 시인은 생명의 예찬자”라며 “오늘 우포늪 시생명제가 우포늪이 지니고 있는 그 시원적인 생명성과 귀중한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생태 및 환경체계의 소중한 정신적 자

산을 한 편의 시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립미술관 <중국미술의 오늘> 전

중국 현대미술의 모든 양상을 한눈에 조망해 볼 수 있는 <중국미술의 오늘>전이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남 도립미술관에서 마련된다.

<중국미술의 오늘>전은 국립현대미술관을 시작으로 전북도립미술관에 이어 경남도립미술관에서 갖는 순회전시로 한국과 중국의 미술문화교류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기획전시이다.

1986년 중국의 문화개방 이후 중국 현대미술의 변화하는 모습과 체제 비판적인 주제의식, 큰 규모, 충격적인 실험성, 전통과 지역성의 배합 등을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작품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작품은 5년마다 열리는 중국 '제10회 전국미술전람회'에 출품된 작품들 중 우수상 이상의 수상작품과 심사위원들의 작품 중에서 엄선된 작품으로 중국화 46점, 유화 41점, 판화 14점, 수채화 13점, 삽화 6점, 조소 1점, 칠화 4점, 만화 4점, 포스터 4점, 선전화 2점, 벽화 1점, 연환화 3점, 연화 1점, 천공예 1점 등 14개 부문의 총 141점이 전시되어 중국 현대미술의 변화하는 모습을 경남에서 처음으로 한눈에 가능할 수 있는 자리이다.

부산소식

박성권
국제신문 기자

문학평론가 김중하 교수, 4권의 저서 출간

문학평론가 김중하(부산대 국문학과) 명예교수가 그 동안 일군 역작들을 한데 모아 4권의 책으로 묶어 5월 11일 출간했다.

저서는 『현대소설의 이론과 작품세계』(삼영사), 『개화기소설 연구』(국학자료원), 『소설, 비평적 읽기의 실제』(세종출판사) 등 저서 3권과 편저 『북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국학자료원)이다.

이 가운데 『현대소설의 이론과 작품세계』와 『개화기소설 연구』는 김 교수가 빚어낸 학술

논문들을 묶은 것이며 『소설, 비평적 읽기의 실제』는 비평적 성격이 담긴 글들을 한데 모은 것이다. 『북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는 김 교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된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이다.

김 교수는 지난 1970년대 초반부터 척박한 지역문단에서 본격적인 평론작업을 시작한 부산문단의 '1세대 정통 문학평론가'로서 이번에 자신의 성과물을 집대성했다고 할 수 있다.

부경대 박물관 재개관

전국 대학 박물관 가운데 수산 및 해양 분야 자료가 가장 많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경대 박물관이 내부 개조 작업을 거쳐 5월 9일 재개관했다.

부경대 박물관은 매장문화재 1262점을 비롯해 해양생물 374점, 어구어선 287점, 해양선박 55점, 교사(校史)자료 283점, 민속자료 17점 등 모두 2278점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해양 수산실에는 국내에 2점뿐인 '살아 있는 화석'인 시일러캔스, 몸집이 수십 미터에 이르는 참고래 뼈, 거인조개, 각종 상어, 연근해와 대양에 서식하는 물고기류, 갑각류, 바다동물 등 다양한 해양생물 박제표본이 전시된다.

또 선사 고고실에는 산등패총부터 산청 사월리 조선무덤에 이르기까지 부경대 박물관이 직접 유적을 발굴 조사하여 수습한 유물들이 시대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기가 빠른 가야 말 투구, 김해 두곡유적에서 출토된 전국 유일의 장방철판 갑옷 등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2005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BASFF)>

5월 8일 폐막한 <2005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BASFF)>에서 올해의 대상(동백대상)으로 김효정 감독의 <토끼와 곰>이 차지했다. 심사위원단(반종 피산타나룬, 밥 커티스 존슨, 안권태, 노동성, 김선아)은 <토끼와 곰>이 독특한 이야기를 잘 끌고 가 동서양 관객 모두에게 호소력을 갖는 작품이라고 평했다. 모두 4편이 선정된 우수작품상은 르노삼성

상에 신동석 감독의 <물결이 일다>, 교보상에 박수영 박재영 감독의 <해본열가족>, 후지필름상에 김선민 감독의 <가리베가스>, 민송상에 다니 로센버그 감독(이스라엘)의 <붉은 장난감>이 선정됐다.

올해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에서 상영된 전체 작품은 23개국에서 출품한 133편이며 이중 경쟁부문 출품작 52편은 12 대 1의 경쟁을 뚫고 본선에 올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LJ필름 어워드' 신설

부산국제영화제가 운영하는 아시아 영화 프로젝트 마켓인 부산프로모션플랜(PPP)의 NDIF(New Directors in Focus)가 'LJ필름 어워드'를 신설해 200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001년 만들어진 NDIF는 한국의 신인 감독들이 영화 제작자와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프로젝트를 직접 소개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줘 유망주를 발굴하는 프로그램. 'LJ필름 어워드'는 평균 5~6편에 달하는 NDIF 프로젝트 작품들 중 한 작품을 선정해 PPP 폐막식당 상금 2,000만 원을 수여하는 것과 함께 LJ필름이 이 작품의 제작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2회 부산국제연극제(BIPAF) 폐막

제2회 부산국제연극제(BIPAF)가 15일, 11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경성대극장 등지에서 열린 이번 연극제에는 모두 7개국(한국 포함) 11개 공연팀이 초청돼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특히 개막작 <화이트 사이드 스토리>를 비롯한 해외초청작 5편은 한국 초연작품으로 '동서양 웃음의 만남'이라는 이번 연극제 주제와 잘 맞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소식

박진현
광주일보 기자

조선시대 명품전

김식(1579~1662)의 <화조도>(花鳥圖·국립중앙박물관 소장)를 비롯한 조선시대 유

명화가들의 명품이 대거 일반에 공개됐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원복)은 지난 5월 9일 박물관 회화실의 전시작품을 '조선시대 꽃·동물·그림'과 '호남의 전통회화'라는 두 개의 주제로 나누어 전면적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모두 34점의 작품들이 선보인 '조선시대 꽃·동물·그림'에는 김식의 화조도를 비롯해 해이징(李滢 1581~?)의 <화조도>, 김홍도(金弘道, 1745~?)의 <화조도>, 장승업(張承業, 1843~1897)의 <화조영모도(花鳥翎毛圖)> 병풍 등이 포함돼 있다. 그 동안 소그림의 대가로 잘 알려진 김식은 작품 <화조도>를 통해 화조화에서도 매우 뛰어난 기량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조선의 전통회화'에는 이 지역 출신으로 조선시대에 화명(畵名)을 떨쳤던 공재 윤두서(1668~1766) 일가와 소치 허련(1808~1893) 일가의 작품 35점이 전시된다. 전시작 가운데에는 윤두서의 <심득경초상(沈得經肖像)>과 윤덕희(1685~1766)의 <마도(馬圖)> 등이 들어 있다. 허련 일가의 작품으로는 허련의 장남이었던 허은(1846~1865)의 <괴석송도(怪石松圖)>, 허백련(1891~1977)의 <추경산수도> 등이 선보인다(<http://gwangju.museum.go.kr>).

진실, 평화, 그리고 연대

5·18 광주 민중항쟁 25주년을 맞이하여 그날의 정신을 되새기는 다채로운 전시회가 열렸다.

광주 시립미술관은 5·18 광주 민중항쟁 25주년을 맞이하여 5월 2일 <광주의 피에타>전과 <천국과 지옥, 그 중간의 회화 오일>전을 동시에 개최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열리는 <광주의 피에타>전에는 고암 이응노, 김정현, 김산하 씨 등의 유화 및 수묵화, 아크릴 작품과 '5월작가' 홍성담, 토미야마 타에코 씨 등의 판화 등 모두 145점이 선보인다.

이탈리아어로 '경건한 동정(同情)'을 뜻하는 피에타(Pieta)는 미술계에서 그리스도의 유해를 무릎에 안고 슬퍼하는 성모 마리아를 표현한 그림이나 조각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시립미술관 '하정웅 컬렉션'실에서 열리는 <천국과 지옥, 그 중간의 회화 오일>전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재일교포 작가 오일(66) 씨의 유화 30여 점이 전시되며 여기에는 1995년 그린 <광주A> <광주B> 등이 포함됐다.

광주 북구 향토문화센터는 최근 <소설로 만나는 5월전>과 <거리 시화전>을 잇따라 열었다. '소설로...'에서는 윤정모의 <님>, 임철우의 <봄날> 등 장·단편 등 총 24편의 소설이, '거리 시화전'에는 김남주의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마라>, 차정미의 <우리 시대 오월> 등 '그날'을 시와 그림으로 풀어낸 시화들이 전시됐다.

남성 중창단 정기공연

남성 중창단 '사랑의 선율을 노래하는 남성들'(대표 박재욱 광주교대 명예교수)의 13번째 정기연주회가 5월 16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지난 98년 창단된 이 단체는 이 지역 초·중·고교와 대학 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13명의 중진 성악가들이 주축이 된 모임으로, 대중가요를 비롯해 뮤지컬, 팝송, 한국 가곡, 아리아 등 우리에게 친숙한 곡들을 남성중창으로 편곡해 남성 특유의 멋이 느껴지는 음악회를 선사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주는 나의 피난처> 등 성가곡과 우리 가곡 <남춘> <보리밭>, MBC 드라마 <허준> 삽입곡인 <송인>, KBS 드라마 <장희빈> 삽입곡인 <그대 향한 사랑> 등을 들려줬다.

제1회 힘내라 한국축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문학희생프로그램 추진위원회(위원장 신경림)와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위원장 도정일)은 5월 14~15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체육공원과 섬진강변 일대에서 <제1회 힘내라 한국문학축제>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문예진흥원이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펼치고 있는 우수문학도서 지원보급 사업과 연계해 마련한 문학행사다. 문학소외 지역에 문화 향수의 기회를 주고 책 읽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자 4월 말 우

수문학도서를 선정할 뒤 개최하는 첫 행사이기도 하다.

'한국문학, 구례 섬진강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행사기간에는 김용택 이시영 임보 송수권 박남준 이원규 박두규 김해화 등이 섬진강을 소재로 쓴 시 작품의 걸개시화전이 열린다.

14일 오전 체육공원에서 열린 '작가와와 대화시간'에는 현기영 박완서 임철우 은희경 공지영 고재중 안도현 이재무 전성태 등 문인들이 참가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전북소식

도휘정
전북일보 기자

2005 전주국제영화제

'자유·독립·소통'을 기치로 내건 2005 전주국제영화제가 9일간의 화려한 영화 축제를 마쳤다(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전주영화의 거리).



2005 전주국제영화제

'시민과 함께하는 영화제'를 추가 슬로건으로 내걸고 개·폐막작을 제외한 모든 상영작을 전주시 고사동 영화의 거리로 집중시킨 올해 영화제는 좌석 점유율 79%를 기록하며 대체로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됐다.

좌석 점유율이 지난해 35%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고, 매진 사례가 속출하는 등의 그 이면에는 110석 내외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상영관에서 영화가 상영된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프로그램 집중도를 높이면서 전체 관객수를 전년도보다 1만1천 명이 많은 6만9천 명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대중적인 영화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전주영화제가 주목한 '마그림 특별전' '북한영화' ('잊혀진)한국영화의 발견' 등

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저조한 관객 점유율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올해 상영작은 31개국 176편. 개막작은 전주영화제의 상징적 프로젝트 <디지털 삼인 삼색>, 폐막작으로는 올해 한국영화 최대 기대작 <남극일기>가 최초로 일반에 공개됐다. 전주영화제의 경쟁 부문 인디비전의 최고 영예인 우수상은 마리나 라즈베츠키나(러시아)의 <추수기>에게 돌아갔으며, <나, 클라우디아>의 주연 크리스틴 톰슨이 특별 언급됐다. 비트 클루삭·필립 레문다(체코)의 <체코드림>과 리우 지아 인(중국)의 <우피>가 디지털스펙트럼의 JJ스타상(디지털 스펙트럼 부문) 공동수상작으로 선정됐다.

JIFF 최고 인기상은 필립 뮐(프랑스)의 <버터플라이>가 수상했으며, 올해 신설된 관객 평론가상은 김희철 감독의 <진실의 문>이 뽑혔다.

민병록 집행위원장은 “더욱 탄탄해진 상영작과 풍성한 부대행사로 영화축제의 흥을 북돋으면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면서 “올해는 영화 매니아와 일반 관객을 적절하게 포용한 영화제였다”고 자체 평가했다.

전통문화창조도시만들기 국제 학술대회

‘전주가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개별성과 고유성만을 내세워서는 안 되며 민관이 함께 경제적 부담을 나누는 지혜와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단장 이종민)과 호남사회연구회(회장 소순열)·전주시가 공동 주최한 ‘전통문화창조도시(Creative City)만들기 국제 학술대회’가 4월 30일 전북대 진수당 최명회홀에서 열렸다.

오오바 요시미 가나자와 대학교수는 “가나자와의 전통음악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현대음악과의 융합을 시도하고, 동북아와 동남아까지 이르는 다양한 문화를 승계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했다”며 “공동체 의식을 길러내는 것이 곧 세계화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4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가나자와는 전통문화도시로 일본 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도시. 오오바 교수는 “가나자와는 전통문화의 맥을 지키면서 미래를 위해 창조적이고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혁신도시를 꿈

꾼다”고 소개했다.

2010년 천도 1300주년을 맞아 일본 나라에서 ‘평성천도 1300년 기념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이찌류 시게루 준비사무국 업무부장은 “행정의 하드웨어와 주민참여의 소프트웨어라는 두 개의 바퀴가 서로 호흡을 맞출 때 원만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문화 유산 보존의 경제적 부담 역시 관민이 함께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을 처음 찾은 이찌류 부장은 “옛스러움이 넘쳐나는 전주의 풍경과 생활상에서 옛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게 됐다”면서 “정상스럽게 손님을 맞는 따뜻한 마음가짐을 지켜보면서 전주는 세계를 향하는 전통문화 중심도시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춘 도시임을 확신했다”고 덧붙였다.

장명수 전주사랑실천연합 대표의 ‘전주 전통문화 도시의 세계화 전략’ 기조강연으로 막을 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문윤걸 전주시정발전연구원원이 ‘전주 전통문화도시 기본전략’을 발표했으며, 이종인 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 전북대 채병선 이정덕교수, 김규원 한국문화정책연구원 문화정책팀장, 김은정 전북일보 교육문화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제3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왕기석 명창 대통령상 장원 차지

전주대사습놀이 ‘형제 명창’이 탄생했다.

5월 2일과 3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 부문에서 왕기석 씨(39, 국립창극단)가 영예의 대통령상인 장원을 차지했다.

그는 지난 2001년 전주대사습 장원에 오른 왕기철 씨의 동생으로 형제가 나란히 명창 반열에 오르는 특별한 기쁨을 안았다.

올해 전주대사습놀이는 판소리명창(15명)과 농악(4팀 168명), 기악(27명), 무용(15명), 민요(18명), 가야금병창(9명), 판소리일반(11명), 시조(31명), 궁도(172명) 등 9개 부문에 302개팀 466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벌였다.

그러나 291개 팀 634명이 참가했던 지난해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추중거리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국내 최고의 국악인 등

용문으로서 위상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문별 장원은 다음과 같다. 판소리 명창 부문=왕기석, 농악 부문=원주매지농악단, 기악 부문=김도현, 무용 부문=이혜진, 가야금병창 부문=나승희, 민요 부문=박윤정, 시조 부문=양장열, 판소리일반 부문=이광복, 궁도 부문=서안식



전주대사습놀이대회에서 장원을 수상한 왕기석 명창

조선 태조 이성계 어진, 111년 만의 외출

조선왕조의 창업자 태조 이성계 어진(御眞)이 역사 밖으로 첫 외출을 했다.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유형식)이 조선왕조 분향으로서 전주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기획한 특별전 <왕의 초상-경기전과 태조 이성계>를 위해 5월 12일 태조 이성계 어진을 경기전에서 전주박물관으로 이안(移安)했다. 이날 이안된 유물은 보물 931호로 지정된 태조 이성계 어진을 비롯해 어진 봉안(奉安) 관련 유물 14점. 1872년 서울에서 제작된 어진을 전주로 옮겨온 가마 신연과 봉안 행렬에서 신연 앞에 놓였던 향연, 경기전 부속 의식구들, 제사 관련 물품 등이다.

이번 이안은 111년 만에 이뤄진 것.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위봉사로 긴급하게 봉안됐다 환안된 이후 처음이다.

왕이 거동할 때와 마찬가지로 어진 이동도 향정자, 신연, 양산, 용선, 봉선, 창개, 흥개 등 의장물 행렬이 따를 정도로 예우를 했던

만큼 전주박물관은 이번 이안에도 섬세한 노력을 기울였다.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어진 이안 작업은 오후 4시 전주 이씨 대중음악원 고유제가 끝나고 어진을 하안하면서 완료됐다. 유물 포장은 국립박물관 용산 이전 과정에서 국보와 보물 등 유물 10만여 점을 이동한 국립중앙박물관 김홍식 학예연구관이 직접 내려와 지휘를 맡았다.

보존상태 사전 점검, 보험가입과 일정 협의, 포장과 해포, 운송 등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된 이안 작업은 왕의 존재를 의미하는 어진의 경우 용안을 덮은 후 3중 보자기로 싸서 흑장케에 넣는 등 이동시 포장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전주중부경찰서 호송 아래 이뤄진 어진과 관련 유물 운송에는 무진동 차량이 사용됐다. 이번 전시를 위해 태조 어진을 내준 경기전에는 1999년 제작된 태조 어진 모사본이 모셔졌다.

태조 이성계 어진은 조선 전기 전주 경기전을 비롯 전국 6곳에 봉안됐지만, 전란 등으로 전주 경기전과 영흥 준원전 두 본만이 남겨졌다. 이후 1872년 전주 경기전 어진을 모본으로 이모본으로 제작돼 유일하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

조선왕조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태조 어진과 경기전(사적 339호)을 조명하는 <왕의 초상-경기전과 태조 이성계>는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주박물관 본관과 사회교육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태조 이성계 어진

제주소식

강태유
제민일보 기자

제주미술계 거목 한자리에

오랜만에 제주미술계의 거목들 작품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달 갤러리 제주아트 기획초대로 마련된 <섬하나 나하나 5월의 대화>전은 70년대 전후 태양처럼 뜨거운 가슴 하나로 열악한 제주화단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제주미술계 '큰 형'들의 작품세계를 면면히 들여다볼 수 있었던 기회.

제주의 옛이야기(‘탐라이야기’)를 작품의 주제로 끌어들여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여행기의 감흥을 잔잔한 유화에 담고 있는 강영호, 수묵담채로 제주의 비경을 선경처럼 묘사한 양창보, 유화작품에 한국화 여백의미를 대입하길 좋아해 이번 전시에서도 앵토라진 과일들을 포개 안을 듯 붉디붉은 화면이 관객의 시선을 압도하는 김택화, 최근 수채와에 흠뻑 심취해 있는 <장미의 선물>의 고재만, 유화 <풍경>의 고영만, 벌거벗은 인간군상들을 앞세워 인간의 고뇌와 삶을 투사하고 있는 고영우, 제주 풍경을 한국화와 문인화로 담고 있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눈이 설 설 내리는 한라산의 설경 풍경을 출품한 부현일.

<서귀포 생활의 중도> 연작을 통해 자연과의 혼연일체와 한국적 서정성을 표현해 온 이월종까지 모두 이번 기획전에서 최근 작품만으로 25점을 내걸었다.

이번 전시에서 빼놓을 없는故 한명섭 화가(1939~2004). 생애 마지막까지 ‘오른팔이 없어도 나의 그림작업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웃음을 잃지 않았던 고인은 ‘동자석’(한지에 채색화) 한쪽에다 “이제는 제 묘터를 떠나 도시의 어느 모퉁이 정원 한 구석에서 노숙자처럼 옛집을 그리고 있는 동자석”을 새겨 안부를 전했다.

제14회 제주연극제 최우수상 <길>

제주도연극협회(회장 강영철) 주최로 지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한라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린 제14회 제주연극제가 성삼문과 신숙주, 한명희, 수양이 겪는 인간적 번민

과 애증의 파노라마를 그려낸 극단 가람의 <길>(김상열 작·이광우 연출)이 최우수상을 차지하며 막을 내렸다.

제23회 전국연극제 예선대회를 겸한 이번 제주연극제에는 극단 세이레의 <제주바다는 소리쳐 울 때 아름답다>(정민자 작·강상훈 연출)와 극단 가람의 <길>, 극단 이어도의 <파도에 길을 묻다>(강용준 작·김광흠 연출)가 출품돼 열띤 경연을 벌였다.

극단 가람의 <길>은 최우수상을 차지하며 제23회 전국연극제 티켓을 거머쥐었고 ‘수양’을 맡은 이상용 씨가 남자연기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도내 연극으로는 처음으로 제주의너 김만덕의 일대기를 다뤘 이목을 끌었던 극단 이어도 <파도에 길을 묻다>는 미술상과 연출상을 수상했다. 이날 여자연기상에는 극단 세이레의 <파도는...>에서 ‘길용 모’ 역을 열연한 현애란 씨가 수상했고 희곡상은 극단 세이레의 정민자 씨가 받았다.

미술창작공동체 우리 창립

전문미술창작공동체 ‘우리’가 결성돼 제주의 열악한 창작환경을 극복하고 자생력 있는 제주미술로 거듭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미술인 강부언·김연숙·김재경·김현숙·양용방·조은득·홍성석·홍진숙씨 등 8명의 설립위원들로 결성된 ‘우리’는 지난 5월 2일 제주시 이도2동 소재 공동체연구실에서 창립식을 갖고 활동을 개시했다.

작가들은 지리적으로 ‘단절된 섬’이란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타지역보다 창작관련 정보와 대외활동에도 제약 받고 있으며, 특히 미술소비시스템의 부재와 함께 관광을 경제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제주에서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 단위의 창작활동을 집단적 미술창작으로 전환, 미술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미술아카데미, 우리조형연구소 등 부설기관을 뒤 신진작가 양성과 제주미술 연구사업, 홈페이지(www.jeuart.net) 구축으로 회원작가들의 전업환경을 보장하고 예비작가들의 작품활동 관련 신속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2005 국악축전 창작국악경연대회 요강 공고

〈2005 국악축전 창작국악경연대회〉가 음악을 사랑하고 국악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의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2004 국악축전 창작국악경연대회〉에 이은 본 대회는 '참여'와 '젊음'을 주제로 장르와 참가자격을 제한을 두지 않고 전통적인 정서가 반영된 수준 높은 창작품을 발굴함으로써, 전통예술의 현대화, 대중화에 이바지하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창작국악 축제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회 개요

- 주최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원장 : 현기영)
- 주관 : 2005 국악축전 조직위원회(위원장 : 황병기)
- 후원 : 국무총리복권위원회, 문화관광부

◎ 일정

- 신청접수 : 2005. 7. 16(토)까지(우편 및 방문접수)
- 예선(데모테이프 심사) 결과 발표(예정) : 2005. 7. 25(월)
- 본선대회 개최 : 2005. 9. 10(토) 오후 5시(예정), 장소는 추후공지

◎ 참가자격

- 참가자격 : 대한민국 국민(나이, 학력 제한 없음), 해외동포, 재한외국인

◎ 참가작품 규모 및 성격

- 미발표된 작품
- 10인 이하 규모의 연주곡(6분 내외), 또는 반주를 대동한 노래곡(4분 내외)
- 한국적인 선율과 장단이 살아 있으며 창의성과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작품
- 한국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하면서 국악과 다양한 장르(재즈, 클래식, R&B, 힙합, 록)가 만나는 작품도 가능함
- 국악기의 사용을 권장하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적인 선율과 장단, 색채가 반영된 작품이어야 함
- ※ 2004 국악축전 창작국악경연대회 본선 진출곡 참고 바람(음반, DVD)

◎ 참가방법

- 노래곡은 반주를 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참가자가 원할 경우 본선에서는 주최측의 10인 이하의 반주 지원도 가능함
- 본선에 진출한 작품은 행사 전에 녹음하여, 음반으로 발표할 예정임. 본선 진출곡에 대한 저작권은 문예진흥원에 일정기간 귀속됨

◎ 심사

- 심사위원 위촉은 접수 마감 후에 하며, 예선 및 본선 심사위원은 별도로 구성함
- 시상 규모(총 4천2백만 원)
- 대상(1팀) : 1천만 원
- 금상(1팀) : 8백만 원
- 은상(2팀) : 각 5백만 원
- 동상(3팀) : 각 3백만 원
- 장려상(5팀) : 각 1백만 원

◎ 참가신청

- 접수기간 : 2005. 7. 7(목)~16일(토) / 오후 2시까지(우편 접수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우편번호 110-766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30
〈2005 국악축전〉조직위사무국 창작국악경연대회 담당자 앞
- 제출서류

 - 1) 악보 3부
 - 2) 데모테이프(CD) 1부
 - 3) 참가신청서 2부

- 제출 시 유의사항
- 악보는 악코르, 피날레 등 악보프로그램으로 사보할 것(A4 용지 크기)(악보에는 제목만 기재하며, 작곡가의 이름은 기재하지 않음)
- 데모(Demo)테이프는 걸면에 참가자 성명과 곡목을 표기하여 반드시 CD로 제출해야 합니다.
- 노래곡의 경우 반주는 간단한 편성이나 기타(Guitar) 및 피아노 반주도 무방함
- 참가신청서(양식)는 문예진흥원 홈페이지(www.kcaf.or.kr)나 〈2005 국악축전〉 홈페이지(www.gugakfestival.or.kr)에서 다운받아 제출합니다.

◎ 기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el : 02-2058-1048, 02-760-4697 / Fax : 02-2058-1049, 02-760-4698
- E-Mail : gugakfestival@hanmail.net
- 운영시간 : 평일 오전10시~오후6시)
- 위의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즉시 문예진흥원 홈페이지 및 〈2005국악축전〉(www.gugakfestival.or.kr)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